

AspenTech, 글로벌 에너지 컨퍼런스 후원

산업공정용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전문기업 Aspen Technology는 3월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글로벌 에너지 컨퍼런스 <CERAWeek 2010>에 공식 후원기업으로 참여한다.

2010년 3회째 CERAWeek Global Oil Summit 을 후원해온 AspenTech는 IBM 및 Price Waterhouse Coopers와 함께 독점 후원하고 있다.

3월9일 화요일에 열린 CERAWeek 컨퍼런스의 오일 데이(Oil Day) 킥오프 행사에서는 ConocoPhillips와 Chevron, IHS CERA의 임원들이 모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와 정유 산업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짚어보는 패널 회의가 마련됐다.

세계 55개국 이상에서 총 2200여명이 참가했으며한 에너지기업 임원들과 정책 입안자들, 정재계 및 기술분야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 수요와 기후변화 정책 및 에너지 시장과 전략에 대한 주제로 토의하고 경제 회복기의 신기술 동향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AspenTech의 <aspenONE> 공정 최적화 소프트웨어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기업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선진 에너지 관리 프로세스 도입에서 탄소 배출 관리에 이르기까지 해당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제조 공정 전반에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Antonio Pietri 필드 오퍼레이션 부사장은 “에너지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서도 최적화된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AspenTech의 수요처들은 혁신적인 사례를 도입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CERAWeek 컨퍼런스에 대거 참여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다양한 토론의 기회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산업이 경제 성장을 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RAWeek 정상 회의 및 컨퍼런스는 세계 최대 에너지기업들의 임원들을 비롯 브루킹스 연구소와 국제 에너지기구, 미국 경제부, 에너지부, 농무부 및 MIT 소속의 산업 및 정부 지도자들이 발표하는 다양한 세션들로 구성돼 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03/12>